

♣서론- 할렐루야! 신앙고백 드리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 나! 저는 그렇게 말한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힘든 신앙생활인가를 45년 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오니까 세상에서 그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은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구원 받은 자의 삶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두 말 할 것도 없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차라리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덜 한데,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 불행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 원가 이루려고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싹어지고, 없어지고, 변할 것을 붙잡고 그렇게 한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복음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에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 교회 안에 불신자 있는가? 있다. 유대인들이 복음 없이 열심히 종교생활 했다. 열심히 회당에 다녔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이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복음 없이 열심히 교회 생활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기쁨이 전혀 없고, 오히려 놀린다. 열심히 다니면 어느 날 서리 집사, 인수집사, 기쁨이 된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없고 생명의 역사가 없다보니, 나중 되면 놀라서 장로가 되었는데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장로님이 우습게 보인다. 목사님들도 그렇다. 이성한 목사님이 되고, 신학교 다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다.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은혜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면 평강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조종하게 주변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평안과 기쁨, 생명의 주변에 하나씩 퍼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거룩한 누룩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매일 체험한다. 매일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한다. 그걸 누구까지 아느냐? 주변에 있는 불신자까지 다 안다. 그래서 불신자가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자녀들이 보고 안다. 전에 다락방에 가니 그러더라. 똑같은 집의 부모님이 계신다. 제가 다락방 하는데, 자녀 중 하나가 그러더라.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니 불신자도 보면 알고, 자녀들도 보면 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알고, 누리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가르켜 뭐라고 하느냐? 남은 자라고 말한다. 복음 가진 남은 자, 오늘 아침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나온다. 복음 가진 사람은 남은 자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 둔 자이다. 이 분이 움직이면 그게 순례자다. 핍박 받아서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그네처럼 이곳, 저곳에 다니지만 복음 때문에 다니는데, 그게 순례자가 된다. 그런데 그 문 속에 빛이 있어서 그 분이 가면 흑암이 무너진다. 그래서 정복자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있다는 것은 이처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된다. 그게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다. 한국교회의 초대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 1.9%라고 한다. 1.9%가 전 한국에 빛이 되면서 영향을 준다. 그것을 두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오늘 은혜교회에 와서 로마서를 지금 계속 듣는데, 로마서는 구원 하나만 계속 말씀한다. 이신득의, 잘못 된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불쌍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그처럼 하는데, 2-3년 가도 내 입에서는 불평, 원망 나오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정말 구원 체험하면 구원 하나로 늘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종교가 뭐고, 율법은 뭐고, 복음이 뭐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그러다. 아담의 시작이 무화과 나무로 엮은 것, 그게 종교다.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놓고 절하고 거기에 복 달라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와서 역사한다. 해보면 원가 역사가 일어난다. 보이지 않는 귀신, 악한 영과 사탄이 역사를 해준다. 아니요, 그것도 좋은 것인데, 그렇다. 좋은 모습으로 온다.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선녀라고도 하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세상 법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이다. 그런데 율법은 늘 정죄의 기능 갖고 있다. 이걸 잘못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걸 죄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 복음을 모르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유체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 거꾸로 신앙생활 한다. 율법은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법이다. 구원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출20장에 보면 십계명 주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구원 이후에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관계,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미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구원 받은 자가 그걸 보면 내 허물이 보인다. 그러니 복음을 모르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놀라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왜 놀리느냐? 복음 중심으로 하지 않아서 늘 율법에 놀린다. 누가 놀리느냐? 착한 사람이 더 놀린다. 착한 사람이 더 놀리고, 착한 사람이 더 놀리니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 오고, 착해서 말도 못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술 한 잔 먹었

다. 사회에도 마찬가지다. 이 양반이 술 한 잔 딱 먹으면 술의 힘을 빌어서 얘기를 한다. 오만 얘기 다 하고, 폭발하고, 사건 터뜨린 사람을 딱 잡아서 보면 나중에 어찌 하느냐? 술 깨면 이 사람이 동네에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술 먹고 놀린 것이 술 힘을 빌어서 그냥 폭발해서 사건을 저지른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곤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것이다. 그게 목회선생이다.

▶복음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것,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이걸 인간의 지식, 과학, 지위, 명예, 학문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안 돼서 여자의 후손인 둘째 아담을 보내셨다.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길이 되셔서 하나님 간섭은 선지자가 되시고, 양으로 오셔서 사탄의 일을 멸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육신적으로 돈 벌고, 출세, 이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죽은 것이다. 이미 하나님 떠난 영혼, 죽은 것이다. 이미 흠이 나 흠으로 돌아갈지라, 죽은 것이다. 사형이라고 재판 받으니까 생명의 밥 먹고 감옥에 가 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영생이다, 부활 생명이 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풍성함을 누리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생명이 다, 요5:24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 내 생명이냐. 그러면 생명 얻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에 있어요? 내일 죽을 자가 안 죽는다, 내가 너를 고쳐줬다, 이 약 먹어라, 그 사람에게는 그 것보다 기쁨이 없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구원을 모른다. 구원을 누릴 줄 모른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나만 진정한 기쁨이 없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실제적으로 어디에 가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상관이 없다. 그걸 불신자가 봐야 된다. 그걸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런 문을 보여야 된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이 상관이 없다. 누렁 써드,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바벨론에 잡혀 갔는데, 상관이 없다. 왕 앞에 섰는데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왕들이 보고 하나님에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된다. 오늘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로마서를 말씀 들으면서 예수 생명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다른 것 누리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생명의 못 누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인도를 못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드렸으나, 설교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러니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만 산다. 10-20년 믿어도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른 사람 시험 걸 말만 하게 된다. 오늘 진정 예수 믿는 포럼 나오기를 축원한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고, 삶이 의의 병기가 되시기 바란다.

▶본문-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로마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교회에 오고 예수는 믿는다.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도 율법 지키야 구원 받는다, 극단적 율법주의자의 영향이다. 로마교인들이 다 그렇진 않겠조. 그러나 우리는 율법 지키는데, 너희들은 안 지키느냐? 우월 의식, 영향 받는다. 내 신앙은 이 정도 되는데, 네는 아직 그것밖에 안 되느냐,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너는 안 되느냐? 자기 위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을 자랑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 믿어도 이거저거 지켜야 되고, 또 반대로 꽤 율법주의다. 쾌락주의, 영지주의다. 극단적 쾌락주의다. 즐거운 게 최고다, 영은 의롭게 되었고, 우리 육신은 악하니라. 물질은 악하니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에 이것해도 괜찮고, 저것해도 괜찮고, 심지어에 다 이루어졌기에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이런 교리를 가지고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이게 뭐냐? 꽤 율법주의자다. 그게 영지주의에서 나온다. 둘 다 그릇 된 신앙 사상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득의의 올바른 복음은 그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답이 뭔가를 말씀드린다.

1.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성도의 특권)→ 이신칭의 받은 성도의 특권이 뭐냐? 첫 째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본문 통해서 율법이란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건 율법이 계속 그렇게 살도록 말한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는 율법은 더 이제 효력이 없다. 바울은 굉장히 엘리트를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법치주의 국가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인데, 로마법은 그 당시에 전부 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법이 최고인 줄 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법이란 용어를 많이 쓴다. 왜냐? 로마는 법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신칭의, 이게 재판 용어다. 의롭다라 말하는 재판, 로마서에는 법을 아주 잘 적용한다.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로마법에도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법이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만 주관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 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갈2:19-20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19절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예수 십자가와 함께 자기는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종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요19:30에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할 때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같았다고 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갇히버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율법의 요구에

서 해방이 된 것이다. 우리 요세 신문에 보면 누구를 조사하려고 피의자로 소송 걸렸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 지금 그런 일이 많다. 사망하니 그 재판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다. 청구할 수도 없고, 감옥에 넣을 수도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다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좋다. 그 말이 아니다. 모든 것 주님이 다 감수했다. 율법이 우리를 걸러고 해도 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마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자리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롬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과 끝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 받는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다. 그러면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없다. 저주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저주가 안 통한다. 어떤 사람은 저 인간이 날 보고 이런, 이런 욕하고 저주 했는데 말이지, 저주했다고 막 속상하고, 그러니 내 속으로 그런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알지도 못하는가? 세상 60억 인구가 우리를 보고 저주해도 전혀 안 통하는 줄 믿으셔야 된다. 그게 구약부터 나온다. 이스라엘 언약이 피 제사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 길로 가는데, 발람이란 이성한 선지자를 돈 주고 사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저주하라고 했는데, 그러니 이 사람이 그레도 하나님이나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하느냐고, 돈 받고도 저주가 안 나온다. 확실하죠 아니기 바란다. 그런데 신경 써서 머리가 이상하다, 이러지 마시고 평안하게 나와 상관이 없어,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전 단계의 계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 그러면 전 단계의 계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효력을 다 했다. 그러면 안 믿으면 그 효력이 그 사람에게는 계속 미친다. 그래서 우리의 특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 함을 누리는 특권이다.

▶율법주의 신앙은 마치 사랑과 자비가 전혀 없는 남편에게 매인 여성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이상한 남편 만나서 고생바가지로 하는 것처럼,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서, 그런 신앙생활이다. 모세로부터 바울 당시까지 여성들은 남편 딱 만나면, 남편이 이 여자 싫다고 그냥 버려버린다. 지금 같으면 열씨미 나, 좋다고 시집가면 되는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다. 버린 여성에게도 장가 갈 수 없고, 이 분은 또 시집 갈 수가 없다. 그 당사가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다. 아니, 그런데 모세는 왜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너희가 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여성들이 시집도 못 가고 고생하고 병에도 못하니, 그래서 시집가라고 이혼증서 써준 것이다. 너희가 악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시효가 끝났기에 내 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에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가느냐? 예수님에게 시집갔다는 것이다.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연합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제한적 기능만 하는 남편과 같은 율법을 끌어 냈고 역할이 끝났다. 근본 역할이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죽은 남편에게 밥 해주러 갈 일이 있어요? 없다.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는 다른 데에 시집가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육인 곳에 해방 받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 받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재혼한 신부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다. 이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함께 접붙어서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오고,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롭게 등불 들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 3절을 같이 보겠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니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지면 재혼한 것으로 음녀가 아닌 거룩한 신부, 존재, 교회, 연합인데, 하나님이나 인정하 합법적인 결혼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기쁘는가? 매일 남편에게 두드려 맞고, 우리는 아가서에서 나온 신랑 같은 분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는가? 할렐루야! 저는 구원 받고 주님과 매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그러면 해방 되었으니까, 오만 짓을 해도 율법에서 상관이 없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과 교제다. 믿음으로 연합된 결혼된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 뭐가 맺어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가 맺는데 거룩한 열매다. 갈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다. 이 열매를 누가 맺는가? 그리스도와 결혼 한 사람 통해 맺어진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게 누군가? 바울은 디모데 보고 내 아들이야, 디도 보고도 그랬다. 베드로는 마가 보고 내 아들 마카라고 한다. 내가 진정 주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의 아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축원한다. 빛의 열매다. 엡 5: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은 불신자의 착함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2.그리스도인의 갈등(성정통)→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갈등은 뭐냐? 성장통이다. 성도는 자기의 모순된 것에 고뇌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잘못에 대한 고뇌가 없다, 그런 큰 병이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와 연합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연합을 잘 모르고,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법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행하며 자기의 신앙 모습이 발견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파야 된다. 그게 성장통이다. 내가 아프지 않다, 그런 한센병(leprosy)에 걸린 것이다. 문둥병이다. 손가락이 썩어져서 문 들어져도 아픈 것을 모른다. 보통 병이 아니다. 그 발견 자체가, 내가 발견 되고 아파하는 자체가 은혜이고, 성령이 비취주시고, 순간마다 돌이키고 더욱 그리스도께로 의지하게 된다. 어떤 신학자는 성도는 걸어 다니는 전쟁터라고 한다. 매번 의의 병기로,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다. 그건 우리에게 죄 성이 있어서 그렇다. 성도는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점차 어디로 나아가느냐? 성숙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성장 통이다. 내 아픔을 통해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아니해야 되겠다. 다시는 여기에 빠지지 않겠다. 성장 통이다. 그런데 생명 없는 사람은 아니다. 돼지가 썩어놓으면 또 구정물에 들어가고 개가 토하면 자기 몸을 먹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한 것이다. 예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는 성장 통이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아픈 것이고, 아프면 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속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고,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고, 그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씨개기다. 구원 받아도 이 땅에서 사는 육신, 죄성은 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세상이다. 그게 세상의 망대다. 우리는 요세 자꾸 듣죠?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고, 빛의 망대를 세워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기를 축원한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는가? 그 대표적인 대 선지자인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람의 몸에서 나를 누가 견제내라,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밖에 뿐이다. 롬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성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러니 율법에 눌리지 말고, 은혜로 출발하셔야 된다. 날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에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된다. 율법의 요구가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이 살았는데, 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성도의 인격 속에 있는 남이 있는 옛 사람의 본성을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단절된 인간은 영원한 사망의 운명에 처하는 것이다. 그건 최고로 불행한 것이다. 이거 해결 안 되고 교회 출석만 한다, 그런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결국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아니하면 못 견디도록 우리에게 죄란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정죄에서 해방 받고, 은혜로 살게 만든다. 우리 은혜교회에, 저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좋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251장이다. 우리 은혜교회의 교가라고 부른다. 많이 부르시기를 축원한다. 주의 은혜, 그 찬송을 부르면 감격과 눈물이 나와 된다. 안 난다, 오히려야 된다. 안 나면 은혜 구하셔야 된다.

3.최후 승리의 확산→ 최후 승리의 확산이다. 이게 특권이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성도의 건인, 궁극적 구원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줄 믿으셔야 된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절대 안 망한다. 그런데 꼭 망할 사람처럼 사니 그게 보통 고생이 아니다. 하나님도 보니 안 타깝고,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안 망할 사람이 망할 짓을 자꾸 하니, 본인도 괴롭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하는 구원의 확산이 전부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매번 구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구원의 확산 갖고 살아가고, 모든 것을 다 이긴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더해진다.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원망 많이 듣고, 불평과 세상 얘기 많이 듣고, 그것 갖고 믿음이 안 생긴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기도회 훈련 때 말씀드렸는데, 매일 성경 1장씩 읽으시라. 그 다음에 매일 정시기도 하고, 포럼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구원의 확산과 체험을 통해 삶의 변화가 온다. 그게 증언이다. 삶의 변화가 안 오는데, 예수 믿어놓고 하면 불신자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다. 왜냐하면 불신자 수준도 안 되는데 얘기하니, 그러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율법주의 신앙보다 높은 신앙생활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은 새 생명 얻게 되며 옛 삶은 청산되고 반드시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면 뻔뻔해야 하는가? 아니다. 죄가 들어오면 못 견딘다. 생명 있는 사람은 그렇다.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란다. 주의 해방 될 것이 있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지만, 징계는 받는다. 이걸 모르니까 방자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히12: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요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누가 바울 사람 있는가? 없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정죄는 하지 않지만 징계는 있다는 것이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자에게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전아들이 아니니라> 저 인간은 잘 믿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상하게 잘 돼, 나는 죽도록 충성해도 나는 왜 이런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세게 때리고, 저 인간은 왜 놔두느냐? 사생자다. 신학적으로 유가다. 그냥 버려 둔 자다. 밖에 다른 아들 잘못하면 내가 얘기할 게 있는가? 얘기 안 한다. 그냥 놔둔다. 유가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든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정죄는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징계는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신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론-** 결론이다. ①남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나는 복음 가진 자다, 남은 자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②순례자로 살아가야 된다. 때로는 흠어진 것 같고, 나그네 같으니,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곳, 저곳에 보내는 순례자로 살아가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빛이 있기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③정복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늘 갈보리산 목상하시고, 늘 감람산 목상하시고, 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축원한다.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죄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이제는 신부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믿음에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약한 부분은 성장 통으로 알고 오히려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걸어 갑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end)